-현실-

…따끔.

어젯밤 짓눌린 명치에서 아릿한 통증이 올라온다. 그 고통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던 희망 회로를 끊었다.

아니.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?

어젯밤 선배의 그 모습은 당연히 진짜다.

배에 남은 멍은 오늘 아침 샤워할 때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으니까.

그러면 지금 내 앞에서 자상하게 미소 짓는 선배의 모습은….

“왜 그래? ”

연기다.

“아뇨. 고민거리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 이만 교실로 돌아갈게요.”

손대지도 않은 커피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.

(철컥)

“앉아.”

은혜 선배가 손에 반쯤 빼든 검을 쥐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.

“…네.”

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몇 초간의 침묵이 지나고, 은혜 선배가 입을 뗐다.

“내가 어제 너한테 뭐라고 했더라?”

“….”

“기억 안 나? 기억나게 해줘?”

“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, 평소처럼 대하라고….”

“그래. 기억하네. 근데 왜 그렇게 안 해?”

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선배는 다리를 꼬았다.

“네가 말을 안 해도, 그따위로 행동하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. 누가 봐도 나하고 뭔 일이 있었구나, 할 거 아냐.”

“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, 글로 적어서 얘기하면 되는 건가? 그딴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?”

“아, 아니요.”

“그러면 평소처럼 하라고. 알겠어?”

“…네.”

어제 겪은 일 때문에, 선배가 손에 쥐고 있는 검을 당장이라도 휘두를 것처럼 느껴졌다.

“알았으면 다시 해봐.”

은혜 선배는 가볍게 한숨 쉬고는 꼬았던 다리를 풀었다.

“자,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까?”

스위치를 켠 것처럼 순식간에 선배의 표정이 변했다. 아니, 표정 말고도 모든 게 바뀌었다.

분위기, 말투, 목소리 톤.

아까 느꼈던 위압감은 사라지고, 눈앞에는 착한 학생회장 고은혜 선배만 남아있었다.

“…네. 그럴까요?”

“후후. 근데 기억이 안 나네.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?”

“그, 그게…. 고민거리 얘기였나요?”

“아, 맞다, 맞다. 후배가 고민거리가 있다고 했잖아. 어떤 고민인지 말해줄 수 있어?”

선배요.

본능적으로 튀어 나가려던 대답을 간신히 참고 어색하게 웃었다.

“뭐였더라? 저도 딴 얘기 하느라 까먹었나 봐요.”

“후후, 후배도 참. 다음에 생각나면 말해주기다?”

“네. 생각나면 바로 말할게요!”

“….”

“….”

(철컥)

“…턱걸이 합격이네.”

은혜 선배의 칼날이 다시 검집 안으로 들어갔다.

“계속 이러면 학생회 한 명은 눈치챈다. 그러니까 평소처럼 행동해.”

“네….”

“알면 됐어. 나가.”

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, 그렇게 보고 싶던 학생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.